

협회소식



◀수련보조수당 전체 전공의 확대 건의

• 일시 : 2004. 11. 5(금)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공의협의회와 공동으로 현재 국공립 수련병원 전공의에 한해 지급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전체 전공의로 확대해 줄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 재정 지원을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공의 모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산지수 연구결과 설명회

• 일시 : 2004. 11. 11(화)

• 장소 : 본회 13층 소회의실

2005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결과 설명회가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진과 협상팀,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연구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선 공단 측 수가연구 결과가 현실적인 수가협상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MRI 급여전환시 병원손실 보전책 제시

• 일시 : 2004. 11. 16(화)

병원협회는 원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의 적정수준 유지 등을 고려한 적정이윤을 반영, 합리적인 적정수가를 보상해 MRI 급여 전환에 따른 급격한 경영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그리고 적정수가 보전이 어려울 경우 MRI 급여전환에 따른 병원경영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지원으로서 2005년도 환산지수 조정시 추가로 반영하고, MRI 급여전환 및 수가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제20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04. 11. 25(목)~11. 26

• 장소 : 여의도 63빌딩 별관 국제회의장

세계로의 도약을 위한 병원산업 기반조성 주제로 전국 병원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선 '병원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의료사고와 병원의 대응' 등에 관한 주제가 발표됐고 병원 보직의사를 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연수강좌도 함께 이루어졌다.

▶▶ 협회소식



◀대한병원협회 송년회 개최

- 일시 : 2004. 12. 8(수)
- 장소 : 롯데호텔

지난 12월 8일 롯데호텔 38층 가넷룸에서 대한병원협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병원협회 임원진과 시도병원회장, 명예회장단 및 관련 단체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년회에서 유태전 회장은 한해동안 어려운 병원경영 환경속에서도 병원을 이끌어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가올 새해에는 병원경영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원했다.



◀병협 임원진, 이명박 서울시장 방문

- 일시 : 2004. 12. 14(화)
- 장소 : 서울시장

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임원진이 서울시청을 방문, 이명박 시장을 만나 병원계 현안을 설명하고 무분별한 무료진료활동, 병상 신증설의 규제 등을 요청했다. 특히 병상 신증설과 관련, "의사를 비롯한 병원인력의 연쇄적인 자리아동으로 기존 병원들이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정책 속에서 전공의 수 급난까지 초래되고 있다"며 병상 증설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계백병원 암환자 모녀에 금일봉 전달

- 일시 : 2004. 12. 16(목)
- 장소 : 상계백병원

상계백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 모녀(어머니·질암, 딸·갑상선암)가 치료비가 부족해 치료를 미루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본회 박정구 상근부회장이 방문, 모녀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투병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05년도 전공의 필기시험 실시

- 일시 : 2004. 12. 19(일)

전후기 전체 정원 3470명 모집에 4154명이 응시한 가운데 2005년도 전기 레지던트 전공의 전형이 필기시험이 잠실고등학교 등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150분 동안 잠실고등학교 등 전국 5개 구역 6개 고사장에서 내과, 외과 등 4개과와 정신과, 영어 등 6개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렀다.



◀건강보험 연수교육 개최

- 일시 : 2004. 12. 23(목)
- 장소 : 가톨릭대 마리아홀

전국 병원 보험·원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선 △2005년 건강보험 정책운영 방향 △2005년 건강보험제도 방향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주요내용 △2005년 건강보험 사후관리 방향(김 홍·복지부 보험관리과 서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 요령 등에 관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병·의협, MRI 관련 공동성명 발표

- 일시 : 2004. 12. 24(금)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정부의 MRI 보험급여와 관련,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가를 책정해 주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MRI수가 책정을 추진하면서 병원의 경영현실이나 관행수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수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의료기관의 존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긴급 전국 병원장 회의 개최

- 일시 : 2004. 12. 28(화)
- 장소 : 본회 14층 대회의실

정부가 MRI 수가와 관련해 병원의 관행수가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가를 책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전국 병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최악의 경우 건정심 불참 등 강경 대응키로 결의했다.



◀MRI 수가 21만 7494원 결정

- 일시 : 2004. 12. 29(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어 MRI 수가를 21만 7494원으로 결정했다. 급여범위는 암과 뇌양성종양, 간질, 치매 등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논란이 됐던 척추질환과 디스크 등은 제외키로 결정했다.